

Y2K, 정부 차원의 대책 속속 진행 중

- 지나친 우려는 사재기 등 부작용 낼 수 있어 -

■글/임은정(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자료협조/정보통신부 Y2K 상황실

컴퓨터 시스템이나 시간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동화 설비 중 일부가 2000년 1월 1일 이후의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된다는 Y2K(밀레니엄 버그) 문제. 얼핏 들으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컴퓨터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요즘, Y2K는 은행·의료·항공, 심지어 수도와 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일시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지금, Y2K 문제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상태다. 벌써 스웨덴에서는 올해 초 유사 Y2K 현상으로 인해 여권 발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Y2K 때문에 벌어질 갖가지 혼란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Y2K 사태에 대비해 비상 식량과 방독면, 응급처치 용품을 준비하는가 하면 은행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금을 구입하는 이른바 '생존주의자(Survivalist)'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과잉 대응은 연말에 최고조에 달해 실제 Y2K



사태를 능가하는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Y2K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Y2K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Y2K 캠페인 주간에 국민들의 Y2K 문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Y2K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0%로 지난 조사 결과인 52.2%보다 향상되었다.

응답자의 62.0%가 Y2K 문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

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39.7%,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은 22.3%였다.

Y2K 문제에 대해 '가정 분야가 취약하다'고 답한 사람이 19.7%에서 4.1%로 감소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가정용품과 Y2K는 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중소기업의 Y2K 대응이 부진한 상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전제품이나 집에서 쓰는 PC가 고장나는 등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금융·수도·전력 같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문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혼란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국민이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분야의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 8월까지 문제 해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전력 및 에너지·국방·통신·운송·해운항만·환경·산업 자동화 설비·원자력 발전·의료·

중소기업·수자원·중앙 및 지방 행정 등 13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Y2K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13대 중점 분야별 추진 실태를 5천5백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평가한 결과 금융, 전력, 원자력 발전, 운송 분야는 문제 해결이 거의 완료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산업 자동화 설비, 국방, 통신, 수자원, 행정 분야도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



계인 시험 운영 단계에 있어 정상적으로 Y2K 대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중소기업과 의

료기관, 민간 선박 부문. 이들 부문은 경영자의 Y2K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가 자금·기술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분야와 운송 분야 중 교통 신호 체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착수가 늦어져 진척도가 저조한 상태다.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 중요 사항에 대한 비상 대책 세워야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의료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해결 방법 등을 수록한 대응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기기에 대해서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중이다.

컴퓨터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Y2K 문제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각 기관과 기업들에게 문제 발생을 가정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대응은 필요없지만 컴퓨터, 통장 정리 등 꼭 필요한 사항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지나친 걱정은 금물, PC의 Y2K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서선일(정보통신부 Y2K 상황실 총괄팀)

Y2K 사태를 불안해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연말에 가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예금 인출, 식료품·의약품 사재기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사일 오발사로 건물이 폭발되는 등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방독면이나 구멍용품을 준비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다.

은행 거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 집에 쌓아둘 필요는 없다. 거래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예정에도 없는 대출을 받는 행위도 어리석은 짓이다. 3~4일 정도 사용할 현금 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고 대

신 통장 정리 등을 확실하게 해두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 비율이 높지 않고 현금 확보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통장 거래를 통해 필요한 돈을 찾아 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지 날짜를 지정해 예약 가동하는 비디오나 카메라 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날짜를 다시 설정하면 문제가 없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철저히 대비해야 할 품목은 바로 컴퓨터다. ▲수동으로 연도를 재설정▲바이오스(BIOS)를 업그레이드▲보정 프로그램(PC 제조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 사용▲기타 보정 기기 사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